

세계적 양산지의 환상적인 골포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인터넷회원 주중그린피 할인

- 5일전 부킹 1만원 할인
- 3일전 부킹 2만원 할인
- 1일전 부킹 3만원 할인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18일 광주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제14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결승전에서 광주 동성고를 꺾고 우승한 장충고 선수들이 모자를 날리며 환호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결승전 이모저모

장충고 학부모들 꽃 선물

○장충고 응원을 위해 무등경기장을 찾은 학부모들은 무등기에서 선전을 다한 선수단을 위해 경기 전부터 우승 꽃다발을 준비.

경기가 끝나고 학부모들은 미리 준비해온 꽃다발을 감독과 코치진에게 전달하고 선수들에게는 장미꽃 한 송이씩을 나눠주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

김주빈 학부모 대표는 "우리 팀이 우승을 할 거라고 믿고 미리 꽃다발을 준비해왔다"며 "선수들 한 명 한 명 모두가 우승의 밑거름이 됐다"고 고마움을 표현.

장충고 서울시 TV보며 응원

○11일부터 광주에 머물고 있는 장충고 학부모와 동문 40여 명은 지정석 스탠드에 앉아 힘껏 박대를 흔들며 학교 응원단 대표를 자처.

원정응원을 오지 못한 장충고 학생들은 각 학급에 설치된 TV로 멀리서나마 야구팀을 응원했다는 것.

아침 9시에 직접 차를 몰고 광주에 온 이창우 장충고 교장은 "여건상 응원단이 오지 못해 아쉽지만 열악한 운동장과 시설에서도 학교 이름을 드높이고 있는 선수들에게 찬사를 보낸다"며 격려.

동성고 600여명 열띤 응원

○ 광주 동성고 1·2학년 학생 550명과 40여 명의 교사들은 12대의 버스를 나눠 타고 경기시작 1시간 전 무등경기장에 도착. 학년별로 노란색과 파란색 장에 도착. 학년별로 노란색과 파란색 모자를 쓴 학생들은 1루 스탠드에 앉아 KIA 타이거즈 소속 치어리더 2명의 구령에 맞춰 노란 막대풍선을 흔들며 응원전을 펼쳐 눈길.

동성고가 이쉽게 1대2로 패하자 동성고 응원단은 일제히 일어나 '괜찮아! 괜찮아!'를 외치며 흥분한 광경을 연출.

심진섭 광주 동성고 교장은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땀 흘리면서 뛰는 것을 보고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협동심도 느꼈을 것"이라며 "많은 동문들의 응원이 선수들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됐다"고 설명.

동성고 동문 쌀 30포대 기증

○ 동성고가 무등기 결승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야구부에 쌀 20kg 30포대를 기증한 동문이 있어 눈길.

동성고 27회 동문 김영석 ((주)만나·(주)보성회현 녹동 대표이사)씨가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화환 대신 받은 쌀 30포대를 모교 야구부에 기증.

김씨는 "작은 정성이지만 학교 명예를 위해 뛰고 있는 자랑스런 후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며 "앞으로 남은 황금사자기·보통대기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주시기를 바란다"고 격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준완 결승타... 장충고 대회 첫 정상 행가래



짜임새 있는 내야수비 정상급... 박민석 투수 'MVP'
동성고 매회 득점 기회 후속타 불발로 놓쳐 아쉬움

〈결승전〉
동성고 | 000 000 010 - 1
장충고 | 010 000 01X - 2

결승전다운 명승부였다. 쪼음의 패기로 중무장한 까까머리 고교 야구 선수들은 열정적인 투혼으로 운동장 스탠드를 가득 메운 응원단을 흥분의 도가니로 밀어넣었다. 야구의 백미인 팽팽한 투수전이 이어졌고, 중요 승부처마다 멋진 수비가 터져 나오면서 9회 마지막 공격까지 손에 땀을 쥐게 했다. 하지만 자존심 강한 무등기는 집중력과 내야 수비의 짜임새에서 한 수위의 기량을 뽐낸 서울 장충고의 품에

안겼다. 장충고는 18일 광주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제14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광주일보사·대한야구협회 공동주최) 결승전에서 '야구 명문' 광주 동성고를 2-1로 꺾고 창단 44년만에 무등기 대회 첫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장충고는 지난해 열린 제 40회 대통령배 결승전서도 동성고에 2-0으로 승리한 인연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01년 8회 대회 이후 6년만에 팀 통산 4번째 무등기 탈환을 노린 동성고는 매회 찾아온 득점 기회를 어렵게 날린 게 뼈아팠다. 선취점은 장충고가 먼저 뽑았다. 장충고는 2회 선두타자 김상호의 우전안타와 김진철의 희생번트로 1사 2루를 만든 뒤 김경환의 우중간을 깨 놓는 3루타로 1점을 얻어냈다. 8회초 1점을 내준 장충고는 곧바로 돌아온 8회말 공격

에서 또 다시 우전안타와 희생번트를 묶어 만든 2사 2루 상황에서 김준완의 우중간 3루타가 터지면서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7안타를 터트린 동성고는 집중력이 아쉬웠다. 3차례나 노아웃에 주자를 내보냈고, 2차례는 인 아웃 이후 출루시켰지만, 단 1득점을 뽑는 데 그쳤다. 동성고는 0-1로 뒤진 3회 선두타자 조우상의 우전안타에 이어 4회에도 첫 타자 윤도경의 좌전안타, 6회에는 임익현의 중전안타로 무사 상황에서 주자를 내보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을 올리지 못했다. 7회에도 1사 2루의 득점 찬스를 살리지 못한 동성고는 8회 임익현의 우익선상에 떨어지는 2루타와 도루를 엮어 만든 2사 3루서 윤효섭의 1타점 2루타로 1점을 만회했다. 하지만 계속된 2사 2루서 문선제가 삼진아웃으로 물러나 땅을 쳐야 했다.



본사 김진영 사장(왼쪽)이 정상에 오른 장충고 선수단에 우승기를 전달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

동성고는 9회초 마지막 공격에서도 노진혁과 윤도경이 연속 삼진으로 물러났고, 마지막 타자 이상원은 2루수 땅볼로 무기력하게 패권을 넘겨줬다. 장충고 에이스 박민석은 5.1이닝을 3피안타, 2탈삼진, 무실점으로 막아냈고, 이어던진 최원제는 3.2이닝 4피안타, 3탈삼진, 1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됐다. 동성고 선발 장경훈은 7이닝동안 5피안타, 2탈삼진, 2실점으로 호투했으나 팀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무등기대회 전적 및 개인상

- ▲우승 = 서울장충고 ▲준우승 = 광주동성고 ▲3위 = 광주제일고, 서울 중앙고 ▲최우수 선수상 = 박민석 (장충고 투수·방어율 0.00) ▲우수투수상 = 최원제 (장충고 투수) ▲타격상 = 신석기 (10타수 5안타·타율 0.500·중앙고 2루수) ▲미기상 = 윤효섭 (동성고 중견수) ▲감독상 = 장경훈 (동성고 투수) ▲최다안타상 = 한희준 (8개·광주일고 중견수) ▲최다타점상 = 김상호 (5타점·장충고 1루수) ▲최다도루상 = 김경모 (8개·장충고 2루수) ▲최다홀런상 = 양성우 (1개·충암고 중견수) ▲감독상 = 유영준 (장충고 감독) ▲지도상 (부장) = 유창길 (장충고 부장) ▲공로상 (교장) = 이창우 (장충고 교장) ▲심판상 = 이명업 (광주시야구협회심판) ▲최인식 선수상 = 박민석 (장충고 투수) ▲특별상 (노히트 노런) = 김민석 (상원고 투수)

“수비를 잘해줘 편하게 던졌어요”

최우수 선수상 영예
장충고 박민석 투수



“무조건 이긴다는 생각으로 죽을 힘을 다해 한 구 한 구 던졌습니다” 장충고의 박민석(18·3년)은 이번 대회 동안 3개 임에 등판해 19.1이닝 동안 탈삼진 9개, 방어율 '0'을 기록하며 9개의 안타만 허용해 팀 우승을 이끌었다. 140km대 초반의 직구와 130km의 슬라이더를 겸비한 박민석은 지난 13일 진흥고와의 예선 경기에 선발로 출전해 8이닝 동안 3안타 무실점으로 역투했다. 결승에서도 16타자를 상대해 단 3안타만을 허용, 동성고 타선을 잠재웠다. “경기 내내 컨디션이 좋았고 무엇보다 수비들이 잘해주어서 편하게 투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팀

이 우승할 거라는 자신감이 가지고 있었지만 최우수 선수에 선발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해서 무척 기쁘고, 끝까지 응원해준 부모님과 동문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청소년 대표 선발과 프로야구 진출이 꿈이라는 박민석은 “자년에 선배들과 대통령배에 출전해 우승을 했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선배들 뒤를 이어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우승의 주역으로 활약하게 돼 영광이다”며 “황금사자기에서도 팀 우승을 위한 주역으로 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심리적으로 더 우세했던것 같아요”

감독상 수상
장충고 유영준 감독



“8회 김준완선수의 역전 3루타가 터졌을 때 우승을 생각했습니다” 지난해 대통령배 우승으로 팀 창단 43년 만에 전국대회 우승을 달성한 뒤 또다시 무등기를 안은 유영준(45) 장충고감독이 “올해도 전국대회 우승을 거둬 감격스럽다”며 우승 소감을 밝혔다. 유감독은 “비슷한 전력의 동성고와 힘든 투수전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특별한 지시 없이 결승이라 생각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선수들에게 맡겼는데, 선수들이 끝까지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나가면서 동성고 선수들보다 심리적으로 우세했던 것 같다”고 선수들에게 우승의 기쁨을 들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최원제 선수가 8회 동점을 허용하고 위기가 있었지만 팀 에이스로 신뢰를 해 끝까지 마운드를 맡겼는데 위기를 잘 넘겼고, 위기 다음에 온 기회에서 김준완 선수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역전 3루타를 쳐 우승을 할 수 있었다” 유감독은 “올해 초 투구폼을 고치느라 고전했던 박민석 선수가 최우수 선수로 선발되는 등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무등기 우승을 통해 선수들의 사기가 충전되어 있어 황금 사자기 대회 우승도 노려볼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